

8/14/22

설교 제목: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6 장 1-71 절

오천 명을 먹이시다(마 14:13-21; 막 6:30-44; 눅 9:10-17)

(요 6: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마 14:15, 막 6:35, 눅 9:12

(요 6: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요 6: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요 6: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 6: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 6: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 6: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절관주** 민 11:21, 민 11:22

(요 6: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요 6: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 6: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요 6: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 6: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요 6: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찻더라

(요 6:14)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 6:15)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마 14:22-27; 막 6:45-52)

- (요 6:16) ○저물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 (요 6:17)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 (요 6:18)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 (요 6:19)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 (요 6:20)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 (요 6:21)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생명의 떡

- (요 6: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절관주** 요 6:2
- (요 6:23)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 **절관주** 요 6:1
- (요 6:24)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 (요 6: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 (요 6: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 (요 6: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 (요 6: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절관주** 눅 10:25
- (요 6: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절관주** 1 요 3:23
- (요 6:30)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 (요 6: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 (요 6: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절관주** 약 1:17
- (요 6: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절관주** 요 6:51
- (요 6:34)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절관주** 요 4:15
- (요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 (요 6: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 (요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 (요 6: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 (요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절관주** 요 11:24, 요 17:12
- (요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 (요 6:41)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 (요 6:42)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절관주** 눅 4:22
- (요 6:4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 (요 6:45)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절관주** 사 54:13
- (요 6: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절관주** 요 1:18
- (요 6: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 (요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 (요 6: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 (요 6:50)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 (요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 (요 6:52)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 (요 6: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 (요 6: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절판주** 요 6:53
- (요 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 (요 6: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절판주** 요 6:49
- (요 6:59)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영생의 말씀

- (요 6: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 (요 6: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 (요 6:62)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 (요 6: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 (요 6:65)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절판주** 요 6:37, 요 6:44
- (요 6:66)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 (요 6: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요 6: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 6: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 6:7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요 6:71)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서 38 년된 병자를 고치신 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준 것을
트집잡아 논쟁을 벌이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벳세다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의 행하신 표적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요 6: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요 6: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마침 유월절도 가까운지라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 온 무리들을 먹이고자 빌립에게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문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예수님이 공생애 중 세 번째로 맞이하시는 유월절입니다.

(요 6: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요 6: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 6: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 6: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나 이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고자 말씀해 보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안드레가 한 아이로부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지 않겠느냐고 여쭙니다.

(요 6: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요 6: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나 안드레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구해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 축사를 하신 후 무리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요 6: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요 6: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 6: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요 6: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찻더라 그런데 무리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고도 남은 떡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원대로' '열 두 바구니'는 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표적을 본 연고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당신이 이땅에 온 목적이 이땅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요 6:14)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 6:15)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땅의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복받아 이 세상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고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마치 본질인양 착각하고 삽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피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시자 무리들은 그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 6:24)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요 6: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요 6: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 6: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이 당신을 찾아 온 목적이 오로지 떡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무리들을 향해 썩을 양식 곧 이땅의 떡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며 그것은 인자이신 당신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묻고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요 6: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요 6: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무리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언급하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요 6:30)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요 6: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가관입니다.

이렇게 당신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너희가 찾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당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당신을 믿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당신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 6: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요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 6: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 6: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 6: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요 6:50)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당신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시며 당신의 살을 먹으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피까지 마시라고 하십니다.

(요 6: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 6: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 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6: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를 언급하시며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당신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땅의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연유입니다.

(요 6:66)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누구에게로 가느냐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요 6: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요 6: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 6: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배움도 부족한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으로 한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것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떡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림자인 떡만 추구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떡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땅의 떡을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미련없이 떠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인 믿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알려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꼭잡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고 최후 승리를 거머질 수 있습니다.